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이상현(010-4300-5441)

e-mail

cpla@minjoo.kr

금융노조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을 지켜내는 이재명과 함께 댑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 11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화) 오전 9시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진행하였다.

지난 8일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걸고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정책 협약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산별노조 차원의 지지와 함께 금융노조 소속 노동조합협의회인 민주평등연대·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도 지난 21일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지지 선언에서 금융노조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김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금융취약계층, 은행노동자를 지켜낼 수 있는 후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11개 은행의 노동자들은 지지 선언을 기점으로 모든 힘을 쏟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동명 상임총괄선대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을, 대선 후 반드시 구체

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금융노조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결정지을 중대한 계기”라며 “금융노조와의 협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선대위 금융노조본부 김형선 본부장(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투표를 독려했다”며 “사전투표부터 6월 3일 투표까지 새로운 대한민국과 금융노동자의 새로운 일터를 위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뛰자”고 말했다.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부분부장을 맡고 있는 박홍배 의원도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금융노동자”라며 “또 금융노동자는 사회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개혁 투쟁을 이끌기도 했다. 성평등 직장을 만들기 위해 여행원 결혼 퇴직 각서를 폐지했고, 87년에는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노동을 탄압할 때마다 싸웠고, 신입 행원 임금 삭감에도 투쟁했다. 대한민국을 바꾼 주5일제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런 금융노동자들이 내란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지지 선언식은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의 체불임금 해결 23주차 아침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어 진행됐다.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SC제일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KB국민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로 구성된 협의회다. / 끝/

첨부. 현장 사진.



▲금융노조 전국은행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